천안함 참사 여파 지역축제 축소

공연 없애고 차분하게

유달산·섬진강변 꽃축제 등 일정 조정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전남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일부 프로그램이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축소 진행된다.

목포시는 2~4일 유달산 일대와 원도심 로데오 광장에서 열리는 '2010 유달산 꽃축제' 프로그램가운데 오락성 공연을 전면 취소했다.

축제 전야제인 2일 로데오 광장에서도 공연 프로그램은 모두 취소됐고 대신에 꽃차·꽃음식 시식회, 한지공예 체험, 유달산숲 사진전시회, 뷰티아카데미 등의 전시·체험행사 위주로 진행된다.

3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되는 축제 선포식도 간소하게 진행하고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행사는 시립무용단과 합창단의 공연만 실시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4일도 공연 프로그램은 모두 취소하고, 꽃장식 전시회·압화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와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여수시와 여수 영취산진달래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유행)는 2~4일 열리는 영취산 진달래축제의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 개최한다.

당초 만개한 진달래꽃과 함께 시민화합 한마당 등 다양한 공연, 체험행사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일 추억의 가요무대, 시민 노래자랑, 3일 의승(義僧)수군 국무도향연, 열린무대 공연, 품바공연, 4일 이집트 밸리, MBC 축하쇼를 모두 취소하고 체험·전시행사 위주로 진행한다.

3~4일 구례군 문척면 죽연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제7회 구례 섬진강변 벚꽃축제'역시 축소 운영된다. 축제위원회는 2일 밤 가질 예정이던 전야제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3일 개막식 때 구조작업도중 산화한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묵념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3~6일 '영암 왕인문화축제'를 개최하는 영암군도 초청가수 축하공연을 비롯해 불꽃놀이 등 유희성 프로그램을 모두 취소키로 결정했다.

신태균 영암 왕인축제 추진위원장은 "천안함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함께 애도하는 차원에서 축소개최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진도 '신비의 바닷길' 인파

'제 3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1일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바닷길을 걷고 있다. 이곳은 조수간만의 차로 2.8㎞의 바닷길 수심이 낮아지면서 40여m 폭의 바닥이 드러나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린다. 〈진도군 제공〉

외국인 주부 82명 '친정 나들이'

농협전남본부 항공료 등 지원

전남지역 외국인 주부들이 친정 방문길에 오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전남지역 다문화가정 21가구(82명)를 선정해 오는 5~12월까지 부부와 자녀에게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50만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다문화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모국방문을 미뤄온 농가다. 방문지별 결혼이민자 국적은 필리핀이 10가정으로 가장 많고 중국, 베트남, 미얀마 순이다.

김용복 전남지역 본부장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협문화복지재단의 도움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부터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펼쳐 84가정(340명)의 모국방문을 주선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목포 참조기 조업기간 12일 연장

어민 33억 추가 수입 기대

목포지역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참조기 조업기간(본보 3월 26일자 10면)이 12일 연장됐다.

1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말 참조기 금어기(禁漁期) 기간을 당초 4월 10일 ~8월 10일에서 4월 22일~8월 10일로 단축,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령을 개정했다.

목포 유자망협회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목포지역 어민들의 참조기 조업일수가 12일 연장돼 55척의 참조기 어선들의 1항차 추가 조업이 가능해지면서 척당 5천만~6천만원, 총 27억~33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법령개정은 박의원이 지난달 19일 목포수협 근해유자망선주협회로부터 조업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부측에 어민들의 애로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목포지역 어민들은 당초 5~7월에서 올해부터 4월 10일~8월 10일로 참조기 금어기(禁漁期) 법령이 개정돼 막대한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4월 말까지 기간 연장을 호소해왔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균열·소음 피해 못살겠소"

장성 빛기촌 주민들 아파트 공사 대책 호소

장성군 장성읍 빛기촌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성군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장성 빛기촌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H건설사가 아파트 신축을 위해 바위발파 등 터파기를 시작하며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대다수 빛기촌 주택은 바위위에 지어져 있는데 아파트 신축현장 바위와 뿌리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바위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집이 흔들리면서 균열이 갔고, 심지어 집이 기울어져 철재 기둥으로 괴어놓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아직도 엄청난 양의 바위가 남아있어 발파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장성군에 수차례 진정하고 아파트신축공사장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서류접수를 안 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달 30일 군청 민원봉사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H건설사는 현재 발파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화약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받아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화약사용 허가도 지난달 말로 끝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H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어느 정도 주민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읍 영천리에 신축중인 아파트는 부지 1만3천306㎡에 지하 1층·지상 15층 3개동(35평형·216세대)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완도 노화 청정전복 생산 숨은 주역 정대석씨

"어민 소득증대" 지방선거 출마 화제

완도에서 14.5㎞, 해남 땅끝에서 9㎞ 떨어진 완도 노화도는 300ha에 달하는 갯벌에 갈대꽃이 피면 장관을 이룬다 해서 '갈대(蘆)+꽃(花)'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규모는 31.84㎢로 인근 보길도보다 크지만 보길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경유지 역할을 하는 등 타지역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었다.

하지만 현재 노화도는 전국 전복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변모했다. 이제는 '노화'하면 '청정해역 전복'을 연상할 만큼 전복이 대표 브랜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밑바탕에는 척박한 지역환경 속에도 10여 년 전부터 오로지 미역과 다시마만 먹여 전복양식을 개척한 수산경영인들의 땀방울이 숨겨져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가운데 완도군 노화읍에서 10여 년간 수산업에 종사해온 수산경영인이 6·2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화제다.

노화읍 전복생산자협회 사무국장인 정대석(48·사진) 군의원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어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 정당눈치 보지않으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며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전복양식에서 판매까지 전략을 세워 어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잘사는 수산 완도군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해남 화원고 명문학교 만든다

郡·재단 5개년 계획 수립

해남군이 지역의 인구유출방지와 인재 육성을 위해 해남고에 이어 면 단위 소규모 사립학교인 화원고를 제2 일반계 명문학교로 육성한다. 해남군과 학교재단(춘계학원 이사장 홍준기)은 수차례 협의를 갖고 우수학생 유치, 교육환경조성, 우수교사 확보 등 학교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해남군과 재단은 매년 1억5천만원을 투입해 성적 우수학생에게는 수업료 전액과 기숙사비 50% 이상 지원을 비롯해 우수교사 확보 및 교사 사기진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화원고는 2010학년도를 '새 학교 문화 창조'원년으로 삼아 현재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매일 밤 11시까지 방과후 보충수업, 자기주도적 학습,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실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농식품부 농어촌뉴타운

장성군에 200가구 공급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지 5곳 중 장성군에 농어촌 뉴타운 200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어촌 뉴타운 중에 최초로 공급되는 물량으로 분양이 70가구, 임대가 130가구다.

농어촌 뉴타운은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조성되는 주거단지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효성공인중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 임야 (농장.묘지적합)
-나주.봉황 3,730평 (㎡당 10,600원)
-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가능)
* 독서실 임대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 인근
-고시학원내 독서실 170평
-보1억5천만 월390만원 (관리비 포함)
* 빌딩 (임대용. 투자용)
-토지 244평 건평 393평 (병원.사무실적합)
-매가 19억
-보증금 1억6천만 월83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중 재산리모델링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급매물 즉시 중개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부지구함
■위치장소 : 제한없음
■용 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확인 된 곳.
광주·전남권 중형마트 구함
■위 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매장면적 : 150-350평
■임대 및 매수가능.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가능
(주) 땅 심
TEL : 010-3616-8698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강 영 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아파트
근린시설
토지(전/답/임야/대지)
상가주택
토지(전/답/임야/대지)
단독/연립/다세대/오피스텔
토지(전/답/임야/대지)
근린상가
근린시설
토지(전/답/임야/대지)
후록
농가주택시설
목욕탕
• 위치:법원 입찰장 건너편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명도(이사)